

서울교육 전환엔 한목소리 낸 보수 후보들... 단일화는 안갯속

서울교육감 선거 보수후보 기자회견
학력저하·교권약화 문제 제기
학생인권조례 대응엔 온도차
성소수자 교육 의제화도 이견
조전혁 “원샷 단일화 제안”
류수노·윤호상은 신중론



김영배 후보



류수노 후보



윤호상 후보



조전혁 후보

서울시교육감 보수 후보들은 진보 교육감 체제 아래 지난 12년간 이어진 서울 교육을 한목소리로 비판하며 교육정책 전반의 전환 필요성을 부각했다. 학생인권 조례와 성소수자 교육 폐지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했지만, 추진 방식과 표현 수위에서는 온도차를 보였다. 보수 단일화 방식에서도 접근 차가 확인되면서, 단일화 성사 여부는 여전히 남은 변수로 떠올랐다.

27일 서울 용산구 서울교육청에서 서울시교육청 출입기자단이 마련한 기자회견에는 김영배·류수노·윤호상·조전혁 후보가 참석해 각자 교육 공약을 발표하고 서울교육 방향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수 후보들은 지난 12년 서울교육을 두고 학력 저하와 교권 약화, 사교육비 증가 문제를 공통적으로 지적했다.

조전혁 후보는 “서울교육이 특정 진영의 편향적 이념 실험장으로 변했다”며 학력 진단 강화, AI 교육 확대 등을 포함한 7대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류수노 후보는 혁신교육의 한계를 지적하며 교권 회복과 학교 본연의 역할 회복을 강조했다. 윤호상 후보는 학교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돌봄·사교육비 부담 완화를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김영배 후보도 기초학력 회복과 인성

교육 강화를 강조하며 서울교육의 방향 전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학생인권조례를 두고는 후보간 입장이 갈렸다. 조 후보는 폐지를 공식화하며 ‘학생권리의무조례’ 신설을 제안했다. 반면 류 후보는 학생 인권과 교권이 상호 존중돼야 한다고 하며 “학생인권조례는 보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소수자·동성애 교육 문제를 둘러싼 시각 차도 드러났다. 특히 조 후보는 ‘퀴어·동성애 교육 추방’을 현수막 문구로 내

걸며 해당 이슈를 전면에서 부각했다. 조전혁 후보는 “사회적 합의가 없는 급진적 전 더·퀴어·동성애 교육이 학교에 무분별하게 들어오는 것을 막겠다”며 “검증되고 사회적으로 합의된 내용만 교육 콘텐츠로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배 후보도 관련 반대 입장을 내세우며 “올바른 성 인식을 바로잡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류 후보는 관련 공약에 대해 “특정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고 선을 그었

다. 류 후보는 “왜 그런 공약을 내세우는지는 이야기를 현장에서 들었다”며 “동성애 교육 반대 공약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 후보도 성소수자·동성애 교육 문제를 교육감 선거의 핵심 의제로 삼는 데는 거리를 뒀다. 윤 후보는 “동성애 교육 추방이라는 개념으로는 교육을 바꿀 수 없다”며 “문제의식과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보수 진영의 최대 변수인 단일화 역시 여전히 안갯속이다. 조전혁 후보는 이날 “조건 없는 원샷 단일화”를 제안하며 류수노 후보를 상대로 제기했던 고발도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배 후보 역시 단일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류 후보는 기존 단일화 논의 과정에 대해 “실망을 넘어 절망”이라며 불신을 드러냈고, 윤 후보도 과거 단일화 과정에서 갈등을 겪었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조 후보는 단일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네 명의 후보가 가슴을 열고 합의하는 게 중요하다”며 “합의한 대로 하면 무조건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경기도, 1호선 북부 배차간격 줄인다

양주~동두천·동두천~연천 운행 추진

경기도가 최대 42분에 달하는 경원선(1호선)의 배차간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주역~동두천역, 동두천역~연천역 구간에 각각 셔틀열차를 운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과 ‘경원선 셔틀열차 운행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1호선 의정부 북부 구간은 북쪽으로 갈수록 운행 횟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평일 기준 양주역의 배차간격은 평균 8분이고, 덕정~덕계역은 14분, 종착역인 연천역은 42분으로 간격이 벌어진다.

협약에 따라 한국철도공사는 기존에 확

보된 6량 3편성의 전동차를 활용해 2027년부터 양주역에서 동두천역까지 17.8km 구간, 동두천역에서 연천역까지 20.2km 구간에 각각 셔틀열차 운행을 추진한다.

도는 관계기관 간 의견 조정 및 행정 지원을 총괄하며, 국가철도공단은 열차 회차 등을 위한 건널선 신설과 승강장 안전문(PSD) 설치 등 시설 개량 사업을 즉시 추진하고, 양주시·동두천시·연천군은 열차 운행비용을 공동으로 분담하며, 셔틀열차는 경원선 11개 역사에서 탑승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2024년 9월 경기도청원으로 1호선 배차간격 단축 요청 의견이 접수된 후 양주, 동두천, 연천, 한국철도공사 등과 경원선 셔틀 및 증차 운행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논의했다.

/경기=김용택 기자 mk4303@

6월 모평 N수생 9만6931명 ‘역대 최다’

내달 4일 전국서 동시 실시
전체 지원자 48만8343명
통합수능 마지막해 변수 부각
사회탐구 선택 66.9% 급증

2027학년도 대학수능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에 졸업생 등 N수생이 역대 가장 많이 몰리면서 수능 경쟁 구도가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사회탐구 선택 비중도 급증해 이른바 ‘사탐란’ 현상이 본격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7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를 다음 달 4일 전국 2124개 고등학교와 564개 지정학원에서 동시에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모의평가 지원자는 총 48만8343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5229명 줄었다. 재

학생은 39만1412명(80.2%)으로 전년 대비 2만2273명 감소한 반면, 졸업생 등 수험생은 9만6931명(19.8%)으로 7044명 늘었다.

평가원이 6월 모의평가 접수 통계를 공개한 2011학년도 이후 졸업생 접수 인원이 9만명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비중 역시 역대 최고치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6월 모의평가는 재학생과 졸업생이 처음 동일 조건에서 경쟁하는 시험”이라며 “올해는 졸업생 유입이 크게 늘어난 만큼 재학생들이 자신의 위치를 판단할 때 졸업생 변수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7학년도 통합수능 체제와 내신 9

등급제가 적용되는 마지막 대입이라는 점도 N수생 증가 배경으로 꼽힌다.

탐구영역 선택 변화도 뚜렷했다. 사회·과학탐구 지원자 62만4723명 가운데 사회탐구 선택자는 41만7935명(66.9%), 과학탐구 선택자는 20만6788명(33.1%)이었다.

사회탐구 비중은 지난해 59.7%에서 7.2%포인트(p)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반면 과학탐구는 같은 기간 40.3%에서 33.1%로 하락했다. 사회탐구 지원자는 1년 새 4만9941명 늘었고, 과학탐구 지원자는 4만1854명 감소했다.

특히 졸업생의 사회탐구 선택 비중은 지난해 55.5%에서 올해 65.1%로 9.6%p 늘었다. /이현진 기자

오늘의 날씨

5월 28일 (목)
음력 : 4월 12일

수도권 날씨
19~26°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해돋이 / 05:14 | 해질 / 19:45

연천 16/27
동두천 17/27
가평 9/20
파주 16/27
서울 19/26
양평 18/27
인천 20/24
수원 20/26
용인 20/26
평택 19/27

백령도 18/22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하나금융 청라 본사 완공, 9월 입주 시작

국내 금융지주 첫 서울 밖 이전
10개 관계사 2200여명 순차 입주
데이터센터 포함 4000명 규모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청라에 건설 중인 하나금융그룹 본사 ‘그룹 헤드쿼터’가 지난 21일 완공되었으며, 오는 9월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국내 금융지주사 중 최초의 서울 외 본사 이전 사례로 약 4,000명의 대규모 금융 클러스터가 청라에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9월부터 연말까지 하나금융지주,

하나은행, 하나증권, 하나카드, 등 총 10개 관계사 2,200여 명을 비롯 기존 통합데이터센터 인력 합산 시 약 4,000여 명이 순차적으로 이전을 완료한다.

이로써 하나금융과 인천경제청은 청라 국제도시를 첨단 판테오와 블록체인 기술이 복합된 은행·보험·투자 글로벌 디지털 금융 중심지로 조성해 나간다는 전략이다.

하나금융의 청라 이전은 2012년 인천시와 인천경제청, 한국토지주택공사가 15년에 걸친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약 내용을 성실히 이행 해왔다.

그 결과 1단계 2017년 통합데이터센터 2018년 2단계 하나글로벌캠퍼스가 금융 인프라의 기반을 다졌으며 그 결과 새로운 출발점인 3단계 그룹헤드쿼터가 5월 21일 준공됐다.

청라국제도시역에 위치한 그룹헤드쿼터는 지하 7층, 지상 15층 규모로 조성됐다. ‘디지털 혁신’을 상징하는 건축으로 특히 1층부터 15층까지 나선형으로 이어지는 약 1.1km의 보행자 램프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건물 외벽 전체는 독일에서 제작한 투명한 저철분 특수유리로 감쌌고 이는 그룹의 투명 경영과 사회적 가치 공유 건축에 향상화한 예술의 결과다. /인천=이영진 기자 sy321@

메트로 한줄뉴스



▲경제 회복 노리는 이란, 총돌 속 美와 협상

▲구테흐스 “지구촌의 전쟁과 불신, 위험한 국제법 위반행위 증가” 경고 /사진 뉴시스

▲“빈산만, ‘아브라함 협정’ 압박 격분... ‘NO’ 100번은 말해”

▲트럼프, 팜 본디 전 법무장관 AI 자문위 발탁... 백악관 복귀

▲日 간사이 공항, 4월 中 관광객 61% 급감... 韓 21% 증가와 대비

▲인도서 열린 ‘한국어 퀴즈대회’... “한국어교육 지속 확대”